

都市 家庭主婦의 家事勞動時間變化와 構造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Household Work Time's Change and Its Structure in Urban Home Makers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金 善 姬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Seon Hee Kim

<目 次>

- | | |
|-------------------|-------------|
| I. 序 論 | IV. 要約 및 論議 |
| II. 理論의 背景 및 研究方法 | 參考文獻 |
| III. 結果 및 解釋 | |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research into the household work time change and its structure in urban home makers by the choosen eleven studies and KBS's Data 1981, 1983, 1985, 1987.

This study were proceeded under some limitations, it is the choosen eleven studies that is different region: large city, medium and small town, and the household work's categories of original auther were changed. And KBS's Data was composed of general formation without personal character of home maker: FLC, number of children, family type, education, region.

Although this study have a certain meaning of implementation, research into the household work time change and its's structu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utlined as follows:

(1) Total household work time did'nt so much changed through the choosen eleven studies compared with the last twenty years ago. In the change of each province household work time, time connected with meals and dwelling did not showed consistancy of change. But cloth laundering and mending time of 80's was declined compared with 70's. Family care time of 80's was increased, home management and buying time was declined

untill '85, but again increasing trend '87.

In choosen eleven studies, the household work time structure of urban home makers can be outlined: time connected with Meals>Family care>Cloth laundering and mending> Dwelling>Home management and Buying.

(2) KBS's time-series data were analyzed as follows:

a) Total household work time of '87 was declining gradually in weekday (34 minutes), sat. (41 minutes), sun. (1 hour and 2 minutes) compared with '81.

b) The change of each province household work time: the time of cooking and sewing home management were declining gradually in its Mean time and its ratio of actors. The acter ratio of household worker in '81, '83, '85 was composed Cooking>Cleaning> Laundering>Home management>Buying>Child care>Sewing. In '87 was composed Cooking>Cleaning>Laundering>Buying>Home management>Child care>Sewing.

c) The structure of household work time revealed some differences in each year and a day of the week.

I. 序 論

1. 研究目的 및 研究內容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家事勞動時間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떠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데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經濟成長과 아울러 生活樣式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家族規模의 縮少 및 平均壽命의 延長등으로 家族週期上的 子女出產期와 養育期가 단축되고 老年期가 대폭적으로 延長되는 등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家族週期の 變化는 家族週期の 主體라고 할 수 있는 여성에게는 자신의 生涯週期(Life cycle)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생활상의 여러 변화와 함께 그 意味가 대단히 중요성을 띠게 된다.

또한 여성의 教育 기회가 증대되고 產業構造가 소프트(soft) 產業 中心으로 高度化되어 감에 따라 未婚·既婚女性의 經濟活動이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여성의 社會活動에 대한 인식과 보수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諸要因들은 가정생활에서 既存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변화를 촉진시킴과 아울러 이제

까지 대부분의 여성의 삶에 있어서 막대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던 家事勞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이때까지 家事勞動은 'shadow work'로서 經濟的 價値를 生産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再評價와 함께 家事勞動의 生産성과 그 價値에 대한 客觀的 評價作業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社會의 諸般變化와 더불어 家事勞動을 'invisible work'에서 'visible work'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主婦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측정과 評價問題에 대한 관심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家事勞動의 問題는 生活時間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生活時間과 관련시켜 家事勞動時間을 측정하고 그 時間構造를 分析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生活時間은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指標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現在生活의 實態를 진단하고 生活의 問題를 發見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누적된 研究結果를 時系列的으로 分析함으로써 그 變化와 樣相을 통해 미래의 생활과 관련된 諸般問題에 대해 長期展望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生活時間을 바탕으로 한 家事勞動研究는 다음과 같은 理論的, 實際的 有用性을 가지므로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主婦의 家事勞動時間量과 그 時間帶를 측정 파악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의 短縮 및 가사노동의 합리화, 적정화를 기할 수 있고 에너지대사랑 및 피로연구 등에 資料를 제공한다.

둘째, 生活이 家庭內部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즉 家族員의 생활시간의 교차·순환 등과 특히 그 調整主體로서 管理者가 가지고 있는 管理原則은 무엇인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세째, 時間의 制限要素 즉 他資源과의 相互關係, 時間需要의 非融通性, 일상적 신체리듬의 파악과 그 극복을 위한 資料를 제공한다.

네째, 가정의 諸機能 상태를 파악 진단함으로써 家族關係와 그 役割構造에 관한 研究資料로 이용될 수 있다.

다섯째, 가사노동의 時間量과 時間帶를 파악함으로써 가족단위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政策 및 公共서비스를 위한 長·短期 프로그램 계획과 社會團體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섯째, 특히 家事勞動의 客觀的인 측정·파악은 家事勞動의 經濟的 評價 및 歸屬價値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理論의 定立과 그에 근거하여 적용 실시되어야 할 여러가지 政策 및 실제적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基礎資料가 된다.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에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관심이 높아졌고 1980년대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生活時間과 관련한 調査와 研究가 증가되었다. 그 연구의 내용은 대부분이 主婦를 中心으로 家事勞動를 영역별로 세분하고, 총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고, 一定地域이나 對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드물었기 때문에 累積된 研究結果를 통해 家事勞動의 構造와 그 變化를 分析하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先行研究들과 「國民生活時間」 調査의 累積된 理論의 資料들 중에서 家事勞動時間 部分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家事勞動時間의 變化와 構造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本 研究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家事勞動時間과 관련된 연구^{註)} 가운데서 市部地域을 대상으로 한 11편의 先行研究를 토대로 가사노동시간의 變化와 그 構造를 抽出해 본다.

둘째, 「國民生活時間」 調査資料(81년, 83년, 85년, 87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主婦의 전체가사노동시간과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및 그 變化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家事勞動時間의 構造를 分析·抽出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 研究의 性格은 20여년간의 여러 연구와 일련의 時系制的 累積資料를 통해서 여러 制限點을 前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家事勞動時間의 構造를 抽出해보려는 試圖의 意味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는 가사노동시간과 관련한 先行研究들과 「國民生活時間」 資料를 토대로 연구자가 研究問題에 따라 再構成하여 分析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制限點이 있다.

첫째, 既存의 先行研究는 調査對象地域, 調査對象者, 標集方法, 時間測定方法등의 면에서 다양하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調査對象地域을 농촌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地域差는 고려되지 못하였다.

둘째, 가사노동의 영역분류에 있어서, 기존연구에서는 3~14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本 研究에서는 이를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족관리, 경영 및 장비'의 5영역으로 再分類하였으므로 分類過程上 原研究者의 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

세째, 「國民生活時間」 資料는 全國을 對象으로 한

註) 강신주의(1968·대구), 윤복자(1975·서울), 지금수(1976·군산), 안영희(1977·진주), 임정빈(1981·서울), 오윤자(1982·서울), 최은영(1984·진주), 이정수(1984·서울), 이정수(1985·김제·이리), 김에설의(1985·서울), 한경미(1987·광주)

「時間量別 集計」資料를 분석하였기때문에 家事勞動時間의 '地域性, 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比較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요한다.

II. 理論的 背景 및 研究方法

1. 理論的 背景

1) 家事勞動時間의 特徵

家事勞動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勞動力을 再生産하며 가족원에게 福祉를 제공하는 個別家庭에서 수행되는 複合활동이다.

Nickell등은(1976, p. 241) "가사노동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일정수준의 청결과 안전을 지키면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식사준비, 설거지, 가족원의 신체적 보살핌, 세탁등의 의복관리 그리고 구매 및 가계부정리등이 포함되는데 각각의 활동은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여 복합적이고 유용한 여러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家事勞動은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육체적 노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에서 일상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가정의 역사를 구축하여 家庭生活文化를 전승하는 文化的, 技術的, 教育的 側面을 가지고 있다.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家事勞動의 內容은 복잡하고 양적으로는 대단히 많다(文淑才, 蔡玉姬, 1986, p. 56).

이러한 家事勞動活動의 指標가 되는 家事勞動時間은 生活時間을 구성하는 다른 항목, 즉 수입노동시간, 생리적 생활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과는 상이한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

첫째, 收入勞動時間은 市場經濟活動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家事勞動時間은 이와는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家事勞動時間은 'shadow work' 'invisible work'에 할당되는 생활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家事勞動은 社會的인 評價가 낮고 아울러 수입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둘째, 收入勞動時間은 기본적으로 社會的인 勞動

組織과 分業體系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그 시간의 배분과 운용에 있어서 受動性과 他律性이 크게 지배하나 家事勞動時間의 경우는 그 영역이 가정에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그 시간배분과 운용에 있어서 自由裁量的 性格이 크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의 경우도 가사노동담당자나 그 가족의 주된 生計維持者의 收入生活時間이 수입 및 가족구성원의 생활에 제약을 주게되므로 受動的인 性格을 배제할 수 없는 二面性을 가지고 있다(大森和子外 pp. 118~119).

세째, 生理的 生活時間, 社會文化的 生活時間은 勞動力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再生産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그 행위자와 수혜자가 일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가사노동시간은 勞動力이 再生産될 수 있는 間接的 條件을 만들어 주는 시간으로서 그 담당자(행위자)와 수혜자가 일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즉, 직접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그 혜택을 입는 사람과는 달리 가사노동 담당자에게는 이것이 勞動力消費時間이 된다.

네째, 生理的 生活時間, 社會文化的 生活時間은 他人과 代替가不可能하나 家事勞動時間은 他人과의 代替가 可能하다. 즉 가족의 협력, 역할분담, 가사사용인 고용, 상품구입, 또는 社會的 勞動에 의한 직접 서비스의 이용, 社會的 公共財나 公共서비스 이용 등에 의해 상당한 정도까지 그 대체가 가능하다.

다섯째, 家事勞動時間은 다른 생활시간에 비해 家庭生活의 諸手段을 사용하는 技術的 勞動(취사, 세탁, 청소, 재봉, 편물 등)에 배분되는 비율이 크고, 주로 그 정신적·시간적 책임이 한세대 중 여성에게 편중·배분되고 있다.

2) 家事勞動時間의 變化

家事勞動時間은 生産力發展에 따라 그 사회에 존재하는 生活諸手段의 量과 質,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所得, 수납관련공간 및 주거공간의 형태와 넓이 등의 物的資源과 生活諸手段의 객관적인 필요량을 좌우하는 가족의 크기 및 가족주기단계, 物的資源의 사용과 관련한 意思決定 및 生活樣式, 취업상태, 그리고 가사노동 담당자의 습관과 기술, 적성, 능력, 심리상태 등의 個人的 資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大森和子外 p. 119).

일반적으로 市場生産이 확대됨에 따라 大資本이 加工度가 높은 消費財 生産과 서어비스 분야에 진출함과 동시에, 이들 상품이나 서어비스의 購入에 의해 家事勞動이 輕減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며, 小家族化 경향이 일반화되고, 여성의 經濟活動人口가 증가함에 따라서 時間資源에 대한 인식이 함께 변화하게 되어 家事勞動에도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財貨와 서어비스가 産業生産에 의해 제공되어 가사노동이 사회로 이양된다 하더라도 이에 限界가 있으며, 오히려 技術的, 社會的 變化는 새로운 財貨와 서어비스에 대한 욕구를 창출하고, 증가된 商品의 量과 향상된 質로 인해 가사노동이 그 내용과 형태는 변했는지라도 家事勞動時間은 그다지 감소되지 않으며 여전히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本質的인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오늘날의 家事勞動變化를 살펴보면 機械化, 商品化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그 勞動과 時間이 경감되고 있기는 하나 그 폭이 현저한 것은 아니며, 한편에서는 가사노동의 質의水準向上에 대한 요구와 物資管理의 증대로 인해 보다 긴 가사노동시간이 요구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S. Linder(1970)의 연구에서는 더 많은 가사용품과 관련기술이 도입될수록 그것을 획득·유지·수리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가사노동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V.K. Oppenheimer(1976)는 가사용품이나 시설의 보급이 가사시간의 量보다는 家事의 質을 바꾸어 준다고 했다. J.P. Robinson(1980)은 단순히 가사용품이나 시설의 유무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가사관련기술이 가사의 短縮을 가져온다는 가정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미약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기영(1987)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家庭機器의 도움으로 최종소비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가정내에서 생산하게 되므로 機械化가 진행되게 되면 재화와 용역의 自給程度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家庭機器의 使用效果는 우선적으로 노동의 경감에 있으며 노동시간 절약의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完全自動機器의 경우는 작업수행시간, 조정시간 및 기기관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시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 정수(1984)는 가정기기 사용빈도와 가사노동시간과의 관계에서 주부들이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사노동을 절감시킬 수 있는 機器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조사결과 실제의 가사노동시간 감소와는 의미있게 나타났지 않다. 한국 여성개발원(1986)에서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 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家事用品保有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은 지역이나 소득을 통제해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가사시설별로도 더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家事勞動時間의 變化는 한편으로는 家事勞動의 商品化, 社會化등으로 인해 身體的인 家事勞動은 전반적으로 경감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質의水準向上에 대한 요구와 증대된 物資管理 및 非身體的인 家事勞動에 대한 요구증대로 인해 가사노동에 대한 量的·質的要求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相反되는 경감요인과 증대요인으로 인해 全體家事勞動時間의 변화의 폭은 그다지 현저한 것은 아니고, 가사노동의 領域別 時間配分の 構造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勞動의 性質, 家事對象의 相違, 具體的인 行動의 種類 등에 따라 그 시간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즉 만일 가사노동시간이 增加했다면 그것이 반의무적인 濃密化에 의한 것인지 혹은 餘暇化에 의한 것인지, 반대로 가사노동시간이 減少했다면 그것이 역할분담에 의한 것인지 또는 社會化, 簡素化, 合理化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그 變化의 意味가 달라지게 되므로 家事勞動時間을 分析할 때 그 變化의 內容과 意味도 함께 論議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大森和子外, p. 120~121).

3) 家事勞動時間의 分類

生活時間이나 家事勞動時間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는 그 分類方法이다. 이것은 개인의 분석목적·연구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分類基準은 가사노동의 목적·발생방식·담당자·필요도·에너지소비량, 그리고 가사노동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생활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의 분류는 가능한 상세한 것이 그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伊藤七ツ外, p. 23). 특히 가정생활에서 家事勞動이 얼마나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가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최대한의 多様性이 풍부한 分類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小分類이고, 또한 조사결과를 의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가사노동영역을 목적에 따라 統合하는 영역의 分類(中分類나 大分類)도 필요하다.

2. 研究方法

本 研究는 기존의 관련 先行研究와 調査資料를 研究問題에 따라 分析·處理한 것이다.

先行研究 結果는 다음과 같이 6영역으로 再分類하여 그 영역별 시간과 전체가사노동시간의 변화 및 그 관계를 분석하여 家事勞動時間構造를 抽出하였다.

- ① 식생활관리-식사준비, 조리, 특별음식준비, 설 것이 등.
- ② 주생활관리-주택정리정돈, 청소(불갈기 및 불 때기, 연료준비도 포함)
- ③ 의생활관리-세탁, 다림질, 의복정리정돈, 재봉, 편물
- ④ 가족관리-가족의 신체적, 비신체적 돌보기
- ⑤ 경영 및 장보기-계획, 시장보기, 가계부기록, 가정잡일, 기타등

「國民生活時間」 調査는 한국방송공사에서 國民生活時間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社會科學의 學間的 研究 및 諸般 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1981년부터 1987년까지 2년마다 收集한 네차례에 걸친 일련의 資料 中 「時間量別 集計表」에서 家事勞動時間을 중심으로 本 研究內容에 따라 再構成·分析하였다.

1) 「時間量別 集計表」의 內容 및 構成은 다음과 같다.

- (1) 행위자율: 1일 동안에 1회 이상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비율
- (2) 평균시간량: 시간량을 15분 기본단위의 개수로부터 계산하였다.

전체평균: 해당층 전체의 평균(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평균)
 행위자평균: 그 행동을 한 사람만의 평균

(同一時間帶 內에 두가지 이상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의 행동 %의 합이 100%를 넘을 수도 있고, 1일 생활행동의 시간량(전체평균)의 합이 24시간을 넘을 수도 있음)

(3) 표준편차: 전체시간량에 대해 산출 이상의 내용을 요일에 따라 평일·토요일·일요일 別로 分析, 處理하였다.

2) 生活行動의 分類中 家事勞動은 다음의 7영역들로 分類되어 있다.

- 家事-취사-부엌일, 식사준비, 설 것이
- 청소-먼지떨기, 걸레질, 쓸기
- 세탁-세탁, 다림질, 말리기(세탁소에 간다는 가정잡일로 처리)
- 재봉, 편물-재봉, 짜집기, 손편물
- 일용품사기-가사용품, 또는 가사에 필요한 물건사기, 심부름
- 육아, 어린이 돌보기-젖주기, 유치원보내기, 아이들(국교생이하)과의 접촉
- 가정잡일-가구정리*, 동사무소가기, 편지, 가계부쓰기, 차물기, 은행가기, 가족돌보기(어린이, 육아제외)*

III. 結果 및 解釋

1. 先行研究에서의 家事勞動時間變化 및 構造

서울시를 비롯한 중소도시(대구, 전주, 광주, 전주, 군산, 김제, 이리등)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한 11편을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기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세부영역들을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족관리, 경영 및 장보기의 5영역으로 統合, 再分類하여 그 변화추세와 개략적인 구조를 추출한 결

* 가정학 영역의 先行研究에서는 '가구정리'는 주생활관리로, 가족돌보기는 가족관리영역에 해당되나 「國民生活時間」 調査에서는 가정잡일로 처리되어 있음.

〈표 1〉 선행연구에서의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										
	강진주 68.대구	우복자 75.서울	지클수 76.부산	안영희 77.전주	임진빈 81.서울	오용자 82.서울	최은영 84.전주	이정수 84.서울	이정수 85.김제·이리	김애실 85.서울	한경미 87.광주
식생활관리	2.53 (28.2)*	2.6 (31.0)	3.47 (31.5)	4.2 (42.0)	4.7 (39.8)	3.50 (38.4)	2.4 (28.9)	2.80 (37.0)	2.70 (38.5)	3.80 (36.7)	2.92 (33.0)
주생활관리	-	1.1 (13.1)	1.48 (13.5)	1.5 (15.0)	1.7 (14.4)	1.48 (16.2)	1.5 (18.1)	.75 (9.9)	.63 (9.0)	1.15 (11.1)	1.35 (15.3)
의생활관리	1.97 (22.0)	1.7 (20.2)	1.38 (12.5)	1.4 (14.0)	2.1 (17.8)	0.99 (10.9)	1.8 (21.7)	.92 (12.2)	.82 (11.7)	1.19 (11.5)	1.53 (17.3)
가족관리	3.00 (33.4)	2.4 (28.6)	-	0.7 (7.0)	1.9 (16.1)	-	-	2.25 (29.7)	2.27 (32.3)	3.21 (31.0)	1.78 (20.1)
경영·장보기	1.47 (16.4)	0.6 (7.1)	4.67 (42.5)	2.2 (22.0)	1.4 (11.9)	3.14 (34.5)	2.6 (31.3)	.87 (11.5)	.60 (8.5)	1.28 (9.7)	1.00 (14.5)
전 체	8.97 (100)	8.4 (100)	11.0 (100)	10.0 (100)	11.8 (100)	9.11 (100)	8.3 (100)	7.57 (100)	7.02 (100)	10.35 (100)	8.85 (100)

()*: 전체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비율
 **: 휴일의 가사노동시간

과 다음과 같았다.

1) 全體家事勞動時間의 變化

〈표 1〉에서 평일의 경우 1968년의 전체가사노동시간은 8.97시간, 76년 11시간, 77년, 10시간, 81년 11.8시간, 82년 9.11시간 84년(최은영) 8.3시간, 84년(이정수) 7.34시간, 85년(이정수) 7.0시간, 85년(김애실) 10.35시간, 87년 8.51시간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서울시의 경우만을 비교하면 75년 8.4시간, 81년 11.8시간, 82년 9.11시간, 84년 7.34시간, 85년 10.35시간이었다. 위의 연구들이 그 地域 主婦들의 代表性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전체가사노동시간은 20여년간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가사노동시간의 요일간 차이를 보면 75년에는 휴일이 평일보다 1시간, 77년에는 0.3시간 적었으나 81년에는 휴일이 평일보다 오히려 1.6시간 더 많았고, 84년에는 1.07시간, 85년에는 0.39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가정주부들은 평일보다 휴일에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領域別 家事勞動時間의 變化

① 식생활에 관련된 가사노동시간은 〈표 1〉에서 평일의 경우 86년 2.53시간에서부터 81년 4.7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조금 감소하였으나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한 요일간의 차를 보면 75년과 76년에는 휴일이 평일 보다 같거나 적었으나 그 이후에는 평일보다 휴일에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주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75년-81년 사이에는 증가하였고 82년부터 감소하다가 85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일관된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 않다. 주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의 요일간 차이를 보면 75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평일과 휴일을 함께 조사한 모든 연구에서 평일보다 휴일에 더 많은 주생활관련 가사노동을 하였다.

③ 의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일관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않으나 대체로 70년대에 비해 80년대의 연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의 요일차를 보면 75년, 77

년의 경우는 평일보다 휴일이 감소하였으나 81년, 84년(이), 84년(최), 85년의 경우는 평일보다 오히려 휴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가족관리관련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77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8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80년대의 연구에서는 계속 증가하여 85년에는 3.21시간을 나타내었다. 가족관리관련 가사노동시간의 요일차를 보면 75년에는 평일에 비해 휴일이 0.6시간 적었고 77년에는 요일간의 차가 없었다. 그러나 81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평일보다 휴일에 오히려 증가하였다.

⑤ 경영 및 장보기시간은 11편의 연구 중 76년, 77년, 82년, 84년(최)의 연구는 주택손질이나 가족관리시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4편의 연구를 제외한 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영 및 장보기관련 가사노동시간은 대체로 81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간의 차이는 75년, 77년에는 평일에 비해 휴일에 시간이 감소했으나 81년 이후는 오히려 평일보다 휴일에 경영 및 장보기시간이 더 증가하였다.

3) 家事勞動時間構造

전체가사노동시간과 각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와 요일간의 시간차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各 領域別 家事勞動時間이 全體家事勞動에 차지하는 比率에 따라 比率이 큰 것부터 순위를 주어서 家事勞動의 構造를 抽出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은 68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11편중 10편의 연구에서 모두 전체가사노동시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76, 84년의 것은 경영 및 장보기가 1위이나 여기에는 가족관리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서울의 경우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이 전체가사노동시간의 약 1/3이상을 차지하며, 81년의 연구에서는 39.8%를 차지하였다.

② 가족관련 가사노동시간을 11편의 연구 중 7편의 연구에서 2번째로 많은 시간과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시간은 68년의 연구에서는 3시간으로서 전체가사노동시간의 33.4%를 차지함으로써 1위를 나타내었고 75년에는 2위, 77년에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80년대의 연구에서는 81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③ 의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은 11편의 연구 중 7편의 연구에서, 특히 84년 이후의 5편의 연구에서 모두 연구간의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3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④ 주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은 68년의 연구를 제외한 10편의 연구 중 6편의 연구에서 4위, 3편의 연구에서 3위, 1편의 연구에서 5위를 나타내었다.

⑤ 경영 및 장보기시간은 8편의 연구 중 6편의 연구에서 5번째의 비율은 나타내었고, 4번째, 2번째가 각각 1편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상에서 11편의 市地域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각 영역별 가사노동이 전체가사노동에서 차지하는 比率를 보면, 여러 制限點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都市主婦의 家事勞動時間構造는 개략적으로 食生活管理時間>家族管理時間>衣生活管理時間>住生活管理時間>經營 및 장보기 時間의 構造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84년 이후의 4편의 연구에서는

〈표 2〉 선행연구에서의 가사노동시간 구조

순위	강신주 68.대구	윤복자 75.서울	지금수 76.군산	안영희 77.전주	임정빈 81.서울	오윤자 82.서울	최은영 84.전주	이정수 84.서울	이정수 85.김제·이리	김애실 85.서울	한경미 87.광주
1	가	식·식*	경	식·식*	식·식*	식	경·식·식*	식·식*	식·식*	식	식
2	식	가·가	식	경·경	의·의	경·가	식	가·가	가·가	가	가
3	의	의·의	주	주·주	가·가	주	의·의	의·의	의·의	의	의
4	경	주·주	의	의·의	주·주	의	주·주	주·주	주·경	주	주
5		경·경		가·가	경·경			경·경	경·주	경	경

가: 가족관리 식: 식생활관리 의: 의생활관리 경: 경영 및 장보기 주: 주생활관리 *: 휴일의 가사노동구조

〈표 3〉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단위 : 시간, 분)

내 용	81년			83년			85년			87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취 사	3.04 (95.76)*	2.55 (95.57)	2.41 (93.83)	2.59 (98.49)	2.55 (96.56)	2.48 (94.62)	2.47 (96.69)	2.39 (96.07)	2.24 (95.66)	2.41 (96.40)	2.34 (94.70)	2.13 (92.80)
재봉·편물	1.46 (15.61)	1.52 (16.18)	1.45 (12.52)	1.42 (20.22)	1.42 (15.27)	1.39 (11.61)	1.04 (10.54)	1.15 (8.88)	1.21 (7.64)	1.33 (7.70)	2.23 (6.50)	2.32 (5.50)
가정잡일	1.37 (58.00)	1.43 (55.30)	1.38 (47.59)	1.19 (48.82)	1.15 (43.87)	1.21 (35.70)	1.40 (61.98)	1.42 (62.19)	1.41 (47.73)	1.16 (55.40)	1.22 (51.30)	1.03 (15.40)
자녀돌보기	1.22 (38.32)	1.26 (23.12)	1.28 (16.57)	1.15 (26.67)	1.24 (29.59)	1.24 (15.27)	1.27 (11.78)	1.29 (10.95)	1.26 (8.68)	1.27 (27.80)	1.17 (20.60)	1.13 (15.40)
일용품구입	1.08 (41.81)	1.10 (40.46)	1.11 (35.26)	1.04 (46.88)	1.09 (43.87)	1.15 (44.09)	1.01 (53.72)	1.07 (30.62)	1.00 (40.70)	1.06 (61.60)	1.04 (56.40)	1.07 (45.70)
청 소	1.08 (85.93)	1.06 (83.82)	1.05 (72.83)	1.07 (89.25)	1.08 (83.23)	1.05 (68.17)	1.05 (82.23)	1.06 (80.79)	1.00 (68.80)	1.05 (84.70)	1.03 (79.40)	1.01 (63.70)
세 탁	1.07 (73.99)	1.08 (68.79)	1.09 (58.38)	1.11 (73.55)	1.08 (63.42)	1.10 (52.69)	1.10 (71.49)	1.14 (65.50)	1.10 (57.44)	1.06 (73.60)	1.12 (67.40)	1.11 (57.20)
전체시간	6.49 (99.23)	6.31 (99.81)	5.40 (99.04)	6.36 (100.0)	6.09 (99.59)	5.30 (98.71)	6.15 (100.0)	6.08 (99.79)	5.07 (99.17)	6.15 (99.00)	5.50 (99.30)	4.38 (98.30)

() * 행위자율 : 1일 동안에 1회 이상 그 일을 한 사람의 비율

거의 同一한 構造를 나타내었다. 또한 家事勞動時間 構造의 요일간의 차이를 보면 時間과 比率의 差異는 있지만 平日과 休일이 거의 같은 構造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分析對象이 된 11편의 연구결과 들에 한해서 보면 家事勞動時間構造는 요일에 의한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國民生活時間」 調査를 中心으로 한 家事勞動時間變化 및 構造分析

1981년부터 1987년까지 2년마다 실시해 온 한국방 송공사의 4차례에 걸친 「國民生活時間」 調査資料를 토대로 우리나라 家庭主婦의 家事勞動時間構造를 抽出하고자 先行研究의 分析에서와 같이 먼저 全體 家事勞動時間과 各 領域別 家事勞動時間에 대해 81년 ~87년간의 變化를 살펴 본 후, 각 영역들이 전체가 사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比率를 分析하였다.

1) 家事勞動時間의 變化

(1) 全體家事勞動時間의 變化

전체가사노동시간의 年度別 推移를 요일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81년 6시간 49분, 83년 6시간 36분, 85년 6시간 15분, 87년 6시간 15분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81년을 기준으로 할 때 87년의 경우 34분 감소하였다. 토요일의 경우는 각 연도별로 6시간 31분, 6시간 9분, 6시간 8분, 5시간 50분으로 점차 감소하였고 81년에 비해 87년에는 41분 감소하였다. 일요일의 경우는 각 연도별로 5시간 40분, 5시간 30분, 5시간 7분, 4시간 38분으로 역시 감소하였고 81년에 비해 87년에는 1시간 2분 감소하였다. 이상에서 요일에 따른 전체 가사노동시간의 감소폭은 일요일 > 토요일 > 평일의 順으로 나타났다.

2) 領域別 家事勞動時間의 變化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國民生活時間」 調査의 分類대로 취사, 청소, 세탁, 재봉·편물, 일용품구입, 자녀돌보기, 가정잡일의 7영역으로 하고 各 領域別 家事勞動時間의 81년~87년간에 걸친 變化를 요일별로 行爲者率과 平均時間^註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① 취사시간

취사의 행위자율 및 평균시간의 요일별 pattern은 各 年度 모두 평일 > 토요일 > 일요일로 나타났다. 요

註) 行爲者平均時間을 말함.

일별 變化推移를 보면 평일의 경우 81년 3시간 4분, 83년 2시간 59분, 85년 2시간 47분, 87년 2시간 41분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81년에 비해 87년에는 23분 감소하였다. 토요일의 경우는 각 年度別 취사시간이 2시간 55분, 2시간 55분, 2시간 39분, 2시간 34분으로 81년에 비해 87년에는 총 21분 감소하였다. 일요일의 경우에도 각각 2시간 41분, 2시간 48분, 2시간 24분, 2시간 13분으로 총 28분 감소함으로써 요일간의 감소폭은 일요일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② 재봉, 편물시간

행위자율의 요일 pattern은 81년에는 토요일이 평일 보다 약간 높으나 전체적으로는 평일>토요일>일요일이었고, 평균시간은 81년의 경우만 제외하면 평일보다 토·일요일이 더 많았다. 年度別 變化推移를 요일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83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81년에 비해 87년에는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81년에 비해 87년에는 7.9% 더 감소하여 재봉·편물을 하는 사람의 比率이 거의 1/2로 줄었다. 平均時間은 계속 감소하다 87년에는 85년보다 29분 증가하였으나 81년에 비해서는 13분 감소하였다. 토요일의 경우 行爲者率은 계속 감소하여 81년에 비해 87년은 9.68% 더 감소하였고 平均時間 역시 85년까지는 계속 감소했으나 87년에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일요일의 경우 행위자율이 계속 감소하여 81년보다 87년에는 7.02% 더 감소하였고 평균시간은 8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87년에 이례적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行爲者率은 요일에 관계없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평일은 81년에 비해 51%, 토요일 60%, 일요일 56% 감소하였고, 平均時間도 요일에 관계없이 8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87년에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③ 가정잡일

行爲者率의 요일 pattern은 85년의 경우만 제외하면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타났고, 平均時間의 pattern은 각 年度에서 모두 평일보다 토·일요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잡일시간의 年度別 變化推移를 보면 行爲者率, 平均時間 모두 요일에 관계없이 감소추세를 보여, 行爲者率은 81년보다 87년에

평일 2.6%, 토요일 4%, 일요일 10.6% 더 감소했고, 平均時間은 평일 21분, 토요일 21분, 일요일 35분 더 감소하였다.

④ 자녀돌보기

行爲者率의 요일 pattern은 83년을 제외하면 모두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타났고 平均時間의 요일 pattern은 평일보다 토요일이 자녀돌보는 시간이 많았으나(87년 제외) 토요일과 일요일, 일요일과 평일 간에 일정한 pattern을 보이지는 않았다. 年度別 變化 推移를 요일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8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87년에 증가하였고, 平均時間은 83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다. 85년의 경우는 행위자율이 83년에 비해 14.8% 더 감소했으나 자녀돌보는 시간은 오히려 12분 더 증가하였다. 81년을 기준으로 보면 87년에는 행위자율은 0.52% 더 감소했고 평균시간은 5분 더 증가하였다. 토요일의 경우는 행위자율과 평균시간 모두 일관된 변화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81년에 비해 87년에는 행위자율이 3.6% 더 감소했고, 평균시간은 9분 감소하였다. 일요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8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87년에 증가하였으며 81년보다 87년에 1.17% 감소하였고, 평균시간은 85년을 제외하면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81년에 비해 87년에는 15분 감소하였다. 85년에는 83년에 비해 자녀를 돌보는 주부의 비율이 6.59% 더 줄었으나 평균시간은 2분 더 증가했고, 87년은 85년보다 행위자율이 6.72% 더 증가했으나 평균시간은 13분이나 감소하였다.

⑤ 일용품구입

행위자율의 요일별 pattern은 평일>토요일>일요일(83년 평>일>토)이었고, 평균시간의 요일별 pattern은 85년의 일요일과 87년의 토요일을 제외하면 일요일>토요일>평일로 나타났다. 年度別 變化 推移를 요일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고 81년에 비해 87년에는 19.79%가 더 증가하였고 평균시간은 85년까지 계속하다 87년에 증가하였으나 81년에 비해서는 2분 더 감소하였다. 즉 일용품을 구입하는 주부들의 비율은 증대했으나 그들이 일용품을 구입하는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토요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계속 증가하여

81년 보다 87년에는 약 16%가 더 증가하였으나 평균 시간은 감소추세를 보여 81보다 87년에는 약 6분 감소하였다. 일요일의 경우도 85년을 제외하면 행위자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81년에 비해 87년에는 약 10.5% 더 증가하였으나 평균시간은 4분 감소하였다.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일용품을 구입하는 주부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그들이 일용품구입에 소비하는 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⑥ 청소

청소를 하는 주부들의 요일별 pattern을 보면 평일 날 청소를 하는 주부가 가장 많았고 다음 토요일, 일요일의 順이었다. 청소시간은 81년, 87년에는 평일이 가장 길었고 83년, 85년에는 토요일이 가장 길었다. 일요일은 각 年度에서 가장 청소시간이 짧았다.

年度別 變化推移를 요일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일관된 변화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81년에 비해 87년에는 1.23% 더 감소했고 평균시간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81년에 비해 87년에는 3분 더 감소하였다. 토요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81년에 비해 87년에 4.42% 더 감소추세를 보여 81년에 비해 87년에 4.42% 더 감소했고 평균시간은 83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81년에 비해 3분 더 감소했다. 일요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85년을 제외하면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81년에 비해 9.13% 더 감소하였고 평균시간도 계속 감소하여 81년에 비해 87년에는 4분 더 감소하였다.

⑦ 세탁

행위자율의 요일별 pattern은 평일>토요일>일요일이었고 평균시간의 요일별 pattern은 일관되지는 않았으나 83년을 제외하면 평일의 세탁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年度別 變化推移를 요일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8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87년에 증가하였고 평균시간은 85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토요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85년버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평균세탁시간은 85년부터 증가하여 81년에 비해 87년에는 4분 더 증가하였다. 일요일의 경우 행위자율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평균 세탁 시간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81년에 비해 87년에는 2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家事勞動時間의 構造

가사노동은 다양한 세부적인 영역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全體家事勞動이 어떠한 領域의 家事勞動으로 어떻게 構成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全體家事勞動時間의 增減은 그 세부영역들이 서로 相反되는 증감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의 變化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즉 우리의 生活樣式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家事勞動이 減少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增加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領域이 어떻게 變化했는지, 그리고 그 變化의 樣相이 全體家事勞動時間과의 比率에서 계속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生活樣式의 變化方向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家事勞動의 組織化, 合理化, 簡素化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家事勞動의 客觀的인 評價를 위해서 全體家事勞動이 어떻게 構造化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主婦들의 家事勞動이 어떻게 構造化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行爲者(率)構造, 즉 하루의 가사노동에서 어느 영역에 어느 정도의 主婦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平均時間構造, 즉 어느 영역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消費하고 있는지를 통해 各 年度別, 요일별 家事勞動構造를 파악하고, 그 年度別 推移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主婦의 家事勞動時間構造를 抽出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家事勞動行爲者構造

주부들이 하루 중 어느 領域의 家事勞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가를 各 年度別로 그 構造와 行爲者率의 요일간 差를 보면 <표 4>와 같다.

81년의 경우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主婦들의 家事領域 中 취사에 가장 높은 行爲率을 보였고 다음이 청소, 세탁, 가정잡일, 일용품구입, 자녀돌보기, 재봉·편물의 順으로 나타났다. 즉 81년의 家事勞動 行爲者構造는 취사>청소>세탁>가정잡일>일용품구입>자녀돌보기>재봉·편물로 構成되어 있으며 요

〈표 4〉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가사노동행위자구조

(단위 : 행위자율 %)

순위 가사내용	81년			83년			85년			87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1. 취사	95.76	95.57	93.83	98.49	96.56	94.62	96.69	96.07	95.66	96.40	94.70	92.80
2. 청소	85.93	83.82	72.83	89.25	83.23	68.17	82.23	80.79	68.80	84.70	79.40	63.70
3. 세탁	73.99	68.79	58.38	73.55	63.42	52.69	71.49	65.50	57.44	73.60	67.40	57.20
4. 가정잡일	58.00	55.30	47.59	48.82	43.87	35.70	61.98	62.19	47.73	61.60*	56.40	45.70
5. 일용품구입	41.81	40.46	35.26	46.88	43.87	44.09	53.72	50.62	40.70	55.40**	51.30	33.90
6. 자녀돌보기	28.32	23.12	16.57	26.67	29.59	15.27	11.78	10.95	8.68	27.80	20.60	15.40
7. 재봉·편물	15.61	16.18	12.52	20.22	15.27	11.61	10.54	8.88	7.64	7.70	6.50	5.50

* : 87년에는 4위가 일용품구입으로 나타났음.

** : 87년에는 5위가 가정잡일의 순위를 타나냈음.

일간의 構造의 差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行爲者率의 요일간의 pattern은 재봉·편물만이 토요일이 높은 행위자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타났으며, 全體平均行爲者率은 토요일>평일>일요일의 順으로 나타났다.

83년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은 취사>청소>세탁>가정잡일>일용품구입>자녀돌보기>재봉·편물의 行爲者構造를 나타내었고 일요일은 일용품구입을 하는 主婦의 比率이 가정잡일을 하는 主婦의 比率보다 높게 나타났다. 行爲者率의 요일간 pattern은 일용품구입의 경우(토요일>평일)만 제외하면 모든 領域에서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타났으며 全體平均行爲者率 역시 평일>토요일>일요일의 順으로 나타났다.

85년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모두 취사>청소>세탁>가정잡일>일용품구입>자녀돌보기>재봉·편물의 行爲者構造를 나타내었고, 行爲者率의 요일간 pattern은 가정잡일의 경우만(토요일>평일) 제외하면 모든 領域에서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타났으며 全體平均行爲者率 역시 마찬가지였다.

87년의 경우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취사>청소>세탁>일용품구입>가정잡일>자녀돌보기>재봉·편물의 行爲者構造를 나타내었고, 81년, 83년, 85년에 비해 일용품구입의 比率이 가정잡일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行爲者率의 요일간 pattern은 모

든 領域에서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타났고, 全體平均行爲者率의 요일간 pattern은 토요일>평일>일요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家庭主婦의 家事勞動行爲者構造는 81년, 83년, 85년에는 취사>청소>세탁>가정잡일>일용품구입>자녀돌보기>재봉·편물로 構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7년에는 일용품구입이 가정잡일보다도 더 높은 行爲者率은 보였다. 그리고 全領域의 家事勞動의 요일간 pattern은 평일>토요일>일요일이었다.

(2) 家事勞動時間構造

우리나라의 主婦들이 여러 家事領域 中 어디에 얼마만큼의 時間을 消費하고 있는가에 대해 行爲者平均時間으로써 各年度別 家事勞動時間構造를 요일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 〈표 5〉와 같았다.

81년의 경우 평일은 취사에 3시간 4분, 재봉·편물 1시간 46분, 가정잡일 1시간 37분, 자녀돌보기 1시간 22분, 일용품구입 1시간 8분, 청소 1시간 8분, 세탁 1시간 7분으로, 평일의 家事勞動時間構造는 취사>살림>가정잡일>자녀돌보기>일용품구입>청소>세탁으로 나타났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는 평일에 비해 세탁시간이 청소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취사>재봉·편물>가정잡일>자녀돌보기>일용품구입>청소>세탁으로 나타났다.

83년의 경우 평일의 家事勞動時間構造는 취사>재

〈표 5〉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구조

(단위 : 시간 · 분)

순위	81년				83년				85년				87년						
	구조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구조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구조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구조	평일	토요일	일요일			
1	취	3.04	2.55	2.41	취	2.59	2.55	2.48	취	2.47	2.39	2.24	취	2.41	2.34	2.13			
2	재	1.46	1.52	1.45	재	1.42	1.42	1.39	가	1.40	1.42	1.41	재	1.33	2.23	2.32			
3	가	1.37	1.43	1.38	가	1.19	1.15	1.21	자	1.27	1.29	1.26	자	1.27	1.17	1.13			
4	자	1.22	1.26	1.28	자	1.15	1.24	1.24	세	1.10	1.14	1.10	가	1.16	1.22	1.03			
5	일	1.08	1.10	1.11	세	1.11	1.08	1.10	청	1.05	1.06	1.00	세	1.06	1.12	1.11			
6	청	1.08	1.06	1.05	청	1.07	1.08	1.05	재	1.04	1.15	1.21	일	1.06	1.04	1.07			
7	세	1.07	1.08	1.09	일	1.04	1.09	1.15	일	1.01	1.07	1.00	청	1.05	1.03	1.01			
전체 시간		6.49	6.31	5.40	6.36			6.09	5.30	6.15			6.08	5.07	6.15			5.50	4.38

*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취 : 취사 재 : 재봉·편물 가 : 가정잡일 자 : 자녀돌보기 일 : 일용품구입 청 : 청소 세 : 세탁

봉·편물>가정잡일>자녀돌보기>세탁>청소>일용품구입으로 나타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용품을 구입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청소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져서 취사>재봉·편물>가정잡일>자녀돌보기>세탁>일용품구입>청소로 나타났다.

85년의 경우 평일의 家事勞動時間構造는 취사 2시간 47분, 가정잡일 1시간 40분, 자녀돌보기 1시간 27분, 세탁 1시간 10분, 청소 1시간 5분, 재봉·편물 1시간 4분, 일용품구입 1시간 1분으로 나타나 취사>가정잡일>자녀돌보기>세탁>청소>재봉·편물>일용품구입의 構造를 나타냈다. 토요일의 경우는 취사>가정잡일>자녀돌보기>세탁>재봉·편물>일용품구입>청소의 構造를 보였고, 일요일은 취사>가정잡일>자녀돌보기>재봉·편물>세탁>청소, 일용품구입으로 나타났다.

87년의 경우 평일의 家事勞動時間構造는 취사>재봉·편물>자녀돌보기>가정잡일>세탁>일용품구입>청소로 나타났고, 토요일은 취사>재봉·편물>가정잡일>자녀돌보기>세탁>일용품구입>청소였으며, 일요일은 취사>재봉·편물>자녀돌보기>세탁>일용품구입>가정잡일>청소의 構造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各年度別 요일에 따른 家事勞動時間構造를 살펴 보았는데 이것을 앞의 家事勞動行爲者構

造와 서로 관련시켜 分析하면 취사는 여러가지의 家事領域 가운데 가장 많은 主婦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영역인데 비해 재봉·편물은 行爲者는 가장 적지만 그들이 그것에 소비하는 시간은 취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85년 제외). 또한 청소나 세탁도 行爲者構造에서는 취사 다음으로 요일에 관계없이 많은 主婦들이 하루 중의 家事勞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소비時間은 다른 가사영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家事勞動의 構造를 分析하는데는 그 行爲者構造와 時間構造를 同時에 서로 관련시켜 그 構造의 意味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IV. 要約 및 論議

本 研究은 우리나라의 家事勞動時間은 어떻게 變化해 가고 있으며, 어떠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여년간의 家事勞動時間 相關 연구 중 市地域을 대상으로 한 11편의 연구와 한국방송공사의 1981년부터 1987년까지의 4차례에 걸친 일련의 時系列的 累積資料를 통해서 여러가지 制限點을 前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家事勞動時間 變化推移와 그 構造를 分析함으로써 家事勞動에 관한 개략적인 틀을 推出해 보고자 하였다.

本 研究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先行研究에서의 家事勞動時間의 變化 및 構造

① 全體家事勞動時間은 1968년부터 1987년 사이의 연구중 선택된 11편의 市地域 연구를 기초로 보면 우리나라 주부의 전체가사노동시간은 20여년간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휴일은 함께 연구한 6편의 연구를 보면 70년대의 연구에서는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휴일보다 많았으나 80년대의 4연구에서는 모두 휴일에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領域別 家事勞動時間의 變化를 보면, 식생활 및 주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은 일관적인 변화추세를 보이지는 않았고, 의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은 70년대에 비해 80년대의 연구에서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가족관리시간은 80년대의 연구에서 증가경향을 보였고, 경영 및 장보기시간은 8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87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③ 각 領域別 家事勞動이 全體家事勞動에서 차지하는 比率에 따라 높은 것부터 順位를 주어 그 構造를 抽出해 본 결과 식생활관련 노동시간이 11편의 연구중 10편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족관련 가사노동시간은 7편의 연구에서 2번째의 시간과 비율을 나타냈다. 의생활관련 노동시간은 11편중 7편의 연구에서 3번째의 시간과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家庭主婦의 家事勞動時間構造는 대략 식생활관리>가족관리>의생활관리>주생활관리>경영 및 장보기의 時間으로 構造化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84년 이후의 4편의 연구에서는 거의 同一構造를 나타내었다. 또한 家事勞動의 요일간의 差異를 본 결과 평일과 휴일이 거의 같은 構造로 나타나 요일에 의한 家事勞動時間構造의 差異는 나타나지 않았다.

2) 「國民生活時間」 調査를 중심으로 家庭主婦의 家事勞動時間의 變化와 構造를 分析한 結果,

① 全體家事勞動時間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점차 감소하였으며 81년에 비해 87년에는 평일 34분 감소, 토요일 41분 감소, 일요일 1시간 2분 감소하였다.

② 領域別 家事勞動時間의 變化는 취사시간의 경

우 81년에 비해 87년에는 평일 23분 감소, 토요일 21분 감소, 일요일 28분 감소하였고, 재봉, 편물시간의 행위자율은 요일에 관계없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81년에 비해 87년에는 평, 토, 일요일 각각 51%, 60%, 56% 감소했으며 평균시간은 8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87년에 현저히 증가하였다. 가정잡일은 85년을 제외하면 행위자율, 평균시간 모두 요일에 관계없이 감소하여 81년에 비해 87년에는 2.6%, 4%, 10.6% 더 감소했고 평균시간은 21분, 21분, 35분 감소하였다.

자녀돌보기는 81년에 비해 87년에는 행위자율이 평, 토, 일요일 각각 0.52%, 3.6%, 1.17% 감소했고, 평균시간은 각각 5분증가, 2분감소, 15분 감소하였다. 일용품구입의 행위자율은 계속 증가추세로 나타나 요일별로 각각 87년은 81년보다 19.79%, 16%, 10.5% 더 증가했으나 평균시간은 2분, 6분, 4분씩 오히려 감소하였다. 청소의 행위자율은 87년의 경우 81년보다 각각 1.23%, 4.42%, 9.13% 감소했고 평균시간도 역시 3분, 3분, 4분 더 감소하였다. 세탁의 행위자율은 요일별로 각각 0.39%, 1.39%, 1.1% 감소했고, 평균시간도 1분 감소, 4분 증가, 2분 증가하여 일관된 推移는 나타나지 않았다.

③ 家事勞動行爲者構造는 81년, 83년, 85년에는 취사>청소>세탁>가정잡일>일용품구입>자녀돌보기>재봉·편물로 構成되어 있었고, 87년에는 일용품구입이 가정잡일보다 더 높은 行爲者率은 나타났다. 또한 全家事領域의 행위자율의 요일간 pattern은 평일>토요일>일요일이었다.

④ 家事勞動時間構造는 81년의 경우 평일은 취사>재봉·편물>가정잡일>자녀돌보기>일용품구입>청소>세탁으로 나타났고 토, 일요일은 세탁시간이 청소시간보다 더 많았다. 83년의 경우 평일은 취사>재봉·편물>가정잡일>자녀돌보기>세탁>청소>일용품구입으로 나타났고, 토·일요일은 일용품구입시간이 청소시간보다 더 많았다. 85년의 경우 평일은 취사>가정잡일>자녀돌보기>세탁>청소>재봉·편물>일용품구입으로 나타났고, 토요일은 재봉·편물, 일용품구입시간이 청소시간보다 길었고, 일요일은 재봉·편물시간이 세탁·청소, 일용품구입

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7년의 경우 평일은 취사>재봉·편물>자녀돌보기>가정잡일>세탁>일용품구입>청소로 나타났고, 토요일은 가정잡일이 자녀돌보기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나타났다. 일요일은 취사>재봉·편물>자녀돌보기>세탁>일용품구입>가정잡일>청소의 構造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家事勞動行爲者構造는 年度別, 요인별로 거의 일치된 構造를 나타냈으나 家事勞動時間構造는 各年度別, 요인별로 조금씩 差異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本研究를 통해서 提起되는 問題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國民生活時間」資料를 이용한 家事勞動時間 研究의 問題點은 첫째, 生活時間分類 中 가구정리, 가족돌보기가 '가정잡일'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家政學에서의 家事勞動時間分類와는 다르다. 즉 '가정잡일'은 그 내용상 家庭經學이나 家庭管理로 볼 수 있으므로 가구정리는 住生活管理領域, 가족돌보기는 家族管理時間으로 配分되어야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잡일'의 해석 時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응답자 특성별(연령 FLC, 학력등)로 된 資料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전체가사노동시간 및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정밀하게 分析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시간은 FLC등 중요한 變因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전체평균이나 전체행위자율 등으로는 미약한 분석에 그치기 쉬운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방송공사에서 행할 「國民生活時間」調査에 家政學者들이 적극 참여하여 인접학문 및 관련기관의 資料를 보다 効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作業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존 先行研究의 內容分析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의 家事勞動時間研究에 있어서 家事內容의 分類基準과 時間測定方法, 收集된 資料의 集計處理上의 問題點등 구체적인 方法論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論議가 필요하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1. 강신주, 서영숙, 최보가, "생활시간관리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제6호, 1968, pp. 133-141.
2. 김애실,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겨울, 1985, pp. 25-48.
3. 文淑才, 蔡玉姬, 「家事勞動」, 新光出版社, 1986, p. 56, pp. 71-74.
4. 안영희, "주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 논문집」, 제16집, 제2호, pp. 19-16.
5. 오윤자, "서울시 주부의 생활시간관리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6. 윤복자, "주부의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2호, 1975, pp. 59-77.
7. 이기영, "國民經濟의 次元에서 본 家事勞動의 意義와 그 展用",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사대논문집」, 제6집, 1982, pp. 207-223.
8. 이정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1984, pp. 103-132.
9. 이정수, 고경애,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대도시와 소도시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2호, 1985, p. 71.
10. 임정빈,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2호, 1981, pp. 73-87.
11. 지금수, "유아가 있는 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군산교육대학논문집」, 제10집, 1976, pp. 235-240.
12. 최은영, "전주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p. 25.
13. 한국방송공사, 「國民生活時間」, 1982, 1984, 1986, 1988.
14. 한국여성개발원, 「女性の 就業實態調査」-기혼여성 을 중심으로, 1986, p. 139.
15. 한경미, "非就業主婦의 家事勞動時間과 그 影響要因에 관한 연구-광주시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16. 伊藤セツ, 大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 共者., 「生活時間」, 光生館, 1986, p. 23.
17. 大森和子, 好本照子, 阿部和子,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者, 「家事勞動」, 光生館, 1985, pp. 118-121.

18. S. Linder,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Clombia University Press, 1970.
19. P. Nickell, A.S. Rice, and S.P. Tucker, 「Management in Family Lining」, 5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6, p. 241.
20. V.K. Oppenhemier,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 Governing Its Growth and Changing Compostion」, 2nd ed., Wesport. Connecticut: Green Wood Press, Inc., 1976. p. 39.
21. J.P. Robinson, "Housework. Technology and Household Work", Women and Household Labor, ed., S.F. Berk, Beverly Hills, Califor: Sage Publications, 1980. p. 64.